

성안드레아 김대진  
순교자 대축일

기도서 496면 (B해)

제1독서 : II 역대 24, 18-22

제2독서 : 로마 5, 1-5

복음 : 마태 10, 17-22

# 숲 정 이

“그러나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마태오 10, 19).

## 강론

## 소리

### 외길 인생

### 만시지탄의 준조세 폐지

김 순태 신부 / 황등주임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왜 가니……” 바보스런 몸짓으로 흐느끼듯 외쳐대는 어느 가수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파고든다. 좋은 노래이거나 특별한 가창력이 있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저 울고싶은 공감대가 많은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울고싶은 것일까?

사랑하는 연인들과 친구, 가족들의 슬픈 이별들이, 못 가진 것은 물론 가질 희망조차 엄두도 못내며 살아온 가난들이 지난날 독재가 준 상처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도 신음한번 토해내지 못했던 가슴들이— 그래서 환과 아픔과 좌절 속에 꺾꽂 참아온 외로운 삶들이 울고 싶은 것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새옹지마 인생처럼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져 다가오는 것이라지만, 우리네 만은 기쁨보단 슬픔이 더 유별나게 많았던 게 아닐까?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 사제 대축일이다. 사제생활이라고 해서 이러한 우리네 생활과 멀어진 것은 아니리라. 똑같이 기쁜 때가 있고, 똑같이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백발이 무성한 한 노사제의 은퇴식에 참석한 일이 있다. 40여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한 길만을 억척같이 살아온 외길인생— 무성한 백발만큼이나 주름진 얼굴에서 고집스러운 신앙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 짧은 인사말을 마치면서, 그 노사제의 움푹해진 두 눈엔 어느새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그 마지막 고이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는 지난날들… 모든 것을 지금껏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이다. 한 젊음과 청춘을 신앙 하나에 내 던지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수없이 밀려오는 회의를 뿌리치며 살아 왔으리라. 혼자 살기에 외로움보다는 사제적 양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이 밋고 미워서 어느때 밤새워 외로운 눈물을 흘렸으리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길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으리라.

어느 분인가 “사제여, 그대는 무엇인가—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니라”라고 결론 짓는다.

진정 사제란 사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제 되어 가는 것이리라. 한 인생의 삶이 아픔속에 성숙하듯, 한 사제역시 끊임없는 자아투쟁 속에 사제됨은 그 노 사제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 미숙한 내 자신을 보며, 진정한 사제 되도록 성 안드레아 성인의 수호를 간절히 빌고 싶은 것이다.

어느 신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준조세부담액이 연간 세출액의 0.77%, 부가 가치세액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0.35%수준에 비해 두배이상이며 우리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나 조세부담률에 거의 70%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란다.

조세라는 말을 큰사전에서 찾아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그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하여 그 관내의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받아들이는 수입」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준조세란 무엇인가?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강압세금 내지 보복을 두려워하는 강박관념의 세금이라고 풀이 할 수밖에 없다.

옛부터 우리 국민은 「열의 한 술밥이 한 그릇이 된다」는 「십시일반」의 인정 속에 이웃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상부상조의 정으로 뭉쳐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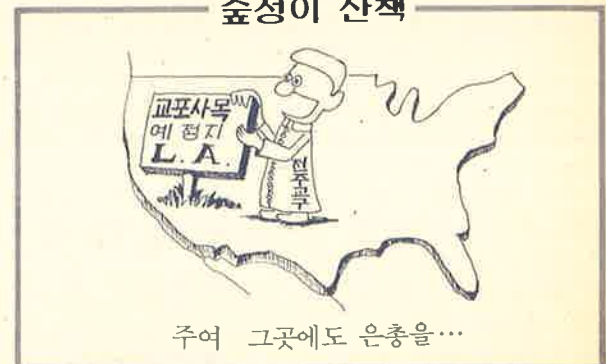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행정재량에 의해 2백여 가지가 넘는 각종 성금이 배당됐고 직장, 학교, 모임, 심지어 반상회를 통한 가정에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하면서도 눈치까지 봐야했다.

아예 우리가 낸 성금의 결산보고는 외면 당하거나 아니면 일방적 통고도 감수하면서 준조세에 시달렸음을 그 누구도 부인 못한다.

다행스럽게도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반갑다.

그러나 「늑대와 양치기소년」이 돼버린 정부의 발표이기에 행여 용두사미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다. 제발 「콩으로 메주를 쑤다해도 콩이 안듣는다」는 속담이 영원히 사라지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 숲정이 산책



### 부디 설워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교우들 보아라.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어 쓸데 없고, 비록 주은(主恩)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領洗) 입교하며 주의 제자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나 실이 없으면 이름이 무엇에 쓰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 배은(背主背恩)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得罪)하면 아니 남만 어찌 같으리오.

이런 황황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이다.-중략

오히려 물러나지 말고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修治)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義子)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궁련(矜憐)하실 때를 기다리라.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주실 것이니 부디 설워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같이 누리기를 천만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탁덕 김 안드레아



## 성서와 함께

### 10. 팔레스티나의 생업(B) : 농업

성서의 세계에 목축업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일상생활은 주로 농업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들의 축제일들은 추수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법령들도 농사일과 깊이 연결된다. 그들의 비유와 상징들도 농업에서 유래된다.

팔레스티나는 경작하기에 결코 알맞은 땅이 아니다. 사막에서 방향하던 유목민들에게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 13:5)이었겠지만, 농업을 본업으로 하던 사람들에게는 척박한 땅에 불과하다. 농토의 대부분이 가파르고 우기에는 산사태가 잦았다. 자갈로 온통 뒤덮인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 농부들은 어깨가 빠지고 허리가 무너져 내려앉는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성퀴를 내리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 (창세 4:17-19).

일년중 다섯 달 동안 틀림없이 가뭄이 보장되지만, 비오는 시기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시사철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넓고 깊은 우물들을 파야했다(역대후 26:10). 그외에 메뚜기떼와 곰팡이가 극성을 부렸고, 유대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은 모든 생물체의 피와 물을 말렸다.

다행이 낮은 구릉과 평원의 땅에서 농부들은 보리와 밀을 경작할 수 있었다. 보리는 사월 말에, 밀은 그보다 한달 늦게 추수한다. 처음 밭갈이는 가을비가 뿌릴 때 즉시 이루어지는데, 여름내 굳어진 땅을 원시적인 쟁이나 쟁기로 긁는 정도이다. 그리고선 씨를 사방에 흩뿌리고, 완전한 우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밭갈이를 한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속에 뿌린다는 상징적 이야기의 팔

레스티나의 이런 영농법을 모르고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마르 4:1-9; 마태 13:1-9; 루가 8, 4-8).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는 다년생 식물로서 뿌리를 땅 속 깊이 내리기 때문에 여름철 가뭄을 이겨내고, 8월과 9월에 추수된다. 마침내 모든 일거리를 끝낸 후 농부들은 큰 나무가지로 엮어만든 초막집에서 먹고 마시며 가을비가 내리기까지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가뭄이나 메뚜기떼, 우박 등의 재앙을 만나 한해의 농사를 망쳤을 땐 수고한 보람도 없이 농부들은 굶주림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쌓아둔 재산이 없는 소작인들에게 있어서 추수의 실패는 자신과 가족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빚을 못 일거나 못 갚을 경우엔 자식들과 아내와 심지어 자기자신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한다. 복음의 비유에서 이런 빚장자와 채권자의 이야기들이 죄인들과 하느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이용된다.

이와 반면, 한 해의 추수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농부들의 기쁨이란 가히 폭발적이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고, 적어도 다음 한 해 동안 굶주림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이다. 보리와 밀의 성공적 수확을 끝낸후, 사람들은 야훼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광적으로 춤추며 노래부른다.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인 농부들이 얼마나 쉽게 가난한 주민들의 풍산신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초월자 야훼 하느님과 달리 가난한 풍산신들은 사람들이 봉헌하는 희생제물에 따라 동식물의 번식과 수확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참]

저희 부친 박지환(베드로)의 장례시에 기도와 조의를 표하신데 삼가 고마움을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현동성당 박영국(마르코)

### 서울직영 전주직매장 하리방등기구전문

박 정근 (요 ㅅ)  
허 금순 (마리야)  
금암동 분수대역 영진빌딩 1층  
☎ 5-5365

### 아르바이트 신자대학생 모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신문확장 업무에 참여할 신자대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함.

자 격: 전주 시내 거주 남녀 신자대학생 (휴학생도 환영)  
구비서류: ① 학생증 복사 1매 ② 이력서 1통(연락처와 명기)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대 우: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접수마감: 1988년 7월 20일  
접 수 처: 전주 서서동 560-6 가톨릭센터 ☎ 85-4102  
가톨릭신문·평화신문전주지사

# 교 구 소 식

- ※ 축! 여산 성당 사제관 축성식: 7월11일 오전 10시 30분 주례 김환철 총대리 신부
1. 신학생 연수회: 11일(월)-14일(목) 장소-관촌 사선대-지리산
  2. 대학생 지역대회: 11일-14일 장소-진안 어은골-한들 집결-11일(월) 오전9시-해성고등학교 '숲정이'
  3. 사목 지침에 따른 연수회: 동산 천주교회-10일 오후2시 무진장 지구: 14일 오전 10시 장소-설천공소
  4. 교구 재정 심의회: 12일 오전10시 장소-교구청
  5. 자연가족계획교육: 12일 오전10시-12시(슬라이드및 비디오 상영) 가톨릭센터 평협회관 2층 행복한 가정 운동 (85-5098)
  6. 웨콜라레 수도자모임: 14일(목) 오후 2시 30분 가톨릭센터.
  7. 웨콜라레 운동의 전국 마리아 뿌리: 23일-26일 서강대학교, 접수마감-15일까지 접수처-서울 웨콜라레본부 문의처-임실성당 박인호신부. (0673) 43-3661
  8. 성모 기사회 전국피정: 일시: 15일~19일(4박5일) 장소-고산분당 수청리공소 접수마감-15일 오후4시-16일 오후 5시(수청리공소에서) 참가비-1인당 10,000원.
  9.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자 모임안내: 주제-축성된 생활 일시-23일 오후5시~24일 오후2시 (1박2일) 장소-서울시 강동구 잠실 5단지 517동 307호 교통편-전철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잠실역에서 주공 5단지 방향으로 도보로 5분거리 참가비-2,000원 참가신청-광주직할시 북구 임동 67번지(062)54-0041-3(22일까지는 우편, 23일은 전화(02) 422-8427)
  10. 남,여 수도 성소자 피정: 일시-23일(오후4시부터)-24일(오후5시까지) 장소-예수고난회, 광주 명상의 집 (시내버스 10번, 110번 경우) 회비-11,000원 신청-전화(062)524-5004. 8004 대상-수도 성소에 관심이 있으신분.
- ※ 축! 영명 성베네딕도(11일): 박성운, 김만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신부  
성 보나벤투라(15일): 이수현신부 축하합니다.
- ※ 주소변경안내: 인후성당-전주시 인후동 586-11번지

## 두려움 —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이웃의 '밥'이 되어주는 아들!

맹자(孟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이 눈에 모를 심었는데 그 벼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자 그만 기다리다 못해 조금씩 뽑아 올렸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벼가 자라게 도와 주었지, 열심히 일했더니만 몸이 피곤하구나"하고 말하였다. 놀란 아들이 달려가 보니 벼는 모두 뽑혀 말라 죽고 말았다.

자식은 부모가 낳았지만 부모가 뜻하는 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뜻하는 바 대로 자라지 않는다 하여 쑥쑥 뽑아 대는 부모들의 열성어린(?) 등산은 급기야 5월에 10명, 6월에 8명의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어리석은 농부처럼 서두르는 욕심 많은 부모 덕택에 얼마나 많은 어린 것들의 작은 가슴을 불안에 떨게 하는가! 부모님네들! 도대체 자신의 자식들이 어떤인물 되기를 바라는가! 행여 힘없고 돈없는 자 되어 남의 밥이 되어 먹히지나 않을지 두려워 그토록 안달인가?

30년간을 준비하시고 3년의 처절한 희생과 봉사에도 결국 힘없이 죽어 남의밥이 되신 예수의 모습이 그렇게도 어리석게만 보이는지..... 이웃의 약점을 '밥'삼아 크고 힘센 괴물이 되느니, 이웃의 '밥' 이기에 행복해 하는 '다른 예수'로 키우기에 온 정열을 바치는 '다른 마리아'와 '다른 요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 요십이 (779) 김병오



□ 1분 명상

사랑은  
깊은 자아 인식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명동피부과의원**

이 등번호의 의원 (전)

안동로 동북향약방  
안동로 동북향약방  
안동로 동북향약방

진료과목: 한방내과 · 부인과 · 소아과  
침구과 · 한방요법실

이리시 중앙동3가 26-4 ☎ 52-4666  
원장 김경환 (파비아노)

한복 · 약혼 · 무용 · 파티 · 결혼

### 고려주단

전 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고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전북 의료조합 지정

###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 현대미용학원

김금순 (메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축개업

### 호남페인트

가옥건물, 방수, 도장  
송권, 이강순 (리드비나)  
병무청 사거리 북계도로 옆  
☎ 82-3933

### 신창규치과의원

전문의: 신창규 (이오스딩)  
이연자 (모니카)  
-위치: 인후아파트 2단지 앞  
☎ 4-2232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남전주지구 연합사목회 단합대회: 일시-10일 오후 1시, 장소-혹석골 한증막, 대상-각 본당 사목회 부장이상 임원.

## \* 노송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신학생 수련회: 7월11일-14일 신학생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2. 아동 여름성경학교: 7월18일-24일 회비-1,000원과 입학원서 제출바람
3. 중·고 여름성경학교: 7월25일-30일 회비1,000원과 입학원서 제출바람. 7월16일까지 접수하오니 부모님의 적극적인 후원 바랍니다. 4. 꾸리아 릴레희: 오늘 오후2시
5. 부녀회 릴레희: 12일 어머니 미사후
6. 종교의 날 행사에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7. 복시기 기증: 본당 신부님 감사합니다.
8. 주소를 작성: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9. 은인을 구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유니폼 초등부250벌 중·고등부150벌 매당1,600원

□ 지난주봉헌금: 709,540원 □ 교무금: 647,000원  
□ 2차헌금: 98,45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오늘 오후2시
3. 빈첸시오회: 오늘 꾸리아후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후
5. 첫영성체 교리: 11일 오후 5시부터
6. 자모회: 14일 오전10시 7. 안나회: 14일 오전10시
8. 성우회 대견회 요셉회 단합대회: 17일 공식미사후 장소-혹석골
9.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18-23일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일균50,000원 · 오장수, 최장기 각20,000원 · 유대식 옥경수 윤석순 장동주 안윤정 정성규 원진희 신형순 옥태수-각 10,000원 이갑진-5,000원 · 내건희-120,000원 익명-40,000원

금주성당참소: 월-사망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전례: 해설-윤기자 독서①김용수 ②황만금 봉헌-김용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상인 독서①나병규 ②김효현 봉헌-나병규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401,220원 □ 교무금: 858,66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 남전주 연합 사목회 단합대회: 오늘 오후1시 혹석골 한증막
  2. 성 가정회: 공식미사후
  3. 남·여 구역장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4. 구역미사: 14일-상신광 21일-하신광
  5.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사제관 신축헌금: 정창희 정형외과(커티)50만원 총14,752,000원 미납액2,088,000원
  7. 영화상영: 가라반달의 성모님-13일 밤9시
  8. 병자방문: 14일
  9. 평화신문, 가톨릭신문구독신청: 다음주 공식미사후
- 지난주봉헌금: 151,990원 □ 교무금: 237,500원  
□ 2차헌금: 63,18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이순성  
사무실 사목회장 김함용  
수녀원 84-2276

- \* 금주강론: 성김대건의 가르침
1. 회 의:
    - ①프란치스코 형제회-오늘 오후2시
    - ②전례부모임-오늘 저녁미사후
    - ③성심회-13일 오후2시
  2. 행 사:
    - ①남전주 연합사목회-오늘 오후1시 혹석골 한증막
    - ②성체강복및 조배-14일 오후8시
  3. 알 린:
    - ①반장월례회-17일로 연기함
    - ②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③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토요일에 나오도록 부모님께서 협조바랍니다.
  4. 감 사: 평화동 신축헌금및 도자기 판매에 협조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봉헌금-평화동신축헌금 □ 교무금: 319,000원

## \* 전동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이수현  
수녀원 84-8347 보좌신부 김진화  
제자사무실 83-5085 사목회장 안득수

- \* "축" 주임신부님 영명축일(7월15일(금)) · 축하식-오늘공식미사후 · 축하연-15일 오후12시(참석여부를 사무실에 접수바람)
1. 남전주 지구 사목의원모임: 오늘 공식미사후 · 장소-혹석골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1:30
  3. 자모회: 오늘공식미사후 \* 성령기도회-11일(월) 저녁미사후
  4. 레지아회의 · 사목회의 · 성화회: 다음주 \* 전례분과회의-12일 저녁미사후(사제관)
  5. 신앙특강: 다음주공식미사중 · 주제-성체성사 · 강사-이순성신부님
  6. 구역장 · 반장모임: 7월18일(월) 오전11시
  7. 7월중 매주 특별2차헌금이 있습니다(사제관 · 사무실개수 공사비)
  8.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월25일(월) 부터 시작
  9. 주일학교 교리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하실 젊은이를 찾습니다.
- 지난주봉헌금: 1,034,330원 □ 교무금: 580,000원

## \* 중화산동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1. 울뜨레아 회의: 오늘 공식미사후
2. 남전주 사목회원 단합대회: 오늘 공식 미사후 혹석골
3. 자모회의: 금요일 어머니 미사후
4. 레지오 단원가입: 적극가입을 요청합니다.
5. 성가대원 성가연습: 매주 토요일10시 자모님 적극협조 요망
6. 신축헌금: 중앙성당 2차헌금 556,000원 감사합니다.
7. 공식미사: 급요리 저녁9시 두원리
8. 하계성경학교: 7월25일(월)-28일
- 지난주봉헌금: 308,120원 □ 교무금: 571,000원  
□ 교황주일헌금: 164,46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1. 신축금 신입자: 교통순30만원 임미자10만원 김혜순10만원 이은숙2만원 유덕진30만원 김효순5만원 정정숙1만원
2. 구역형제회: 목요일-오전11시: 7-8, 9, 5-6(미사) 오후3시: 2,4,1(미사) 오후8시: 28,29,27(미사) 금요일-오후8시: 10-11, 13, 3(미사) 3. 성모회: 다음주 9시반 미사후
4. 감사합니다: 서학동 형제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신축금봉헌액1,273,520원 · 신축금신입자-이순성10만원 이동재10만원 주양근8만원 이원석1만원 강봉환2만원 박규명5천원 정만성2만원 손종순1만원 박봉이1만원 김한기5만원 민병부5만원 강정희2만원 민병석10만원 김성수2만원 박요셉5만원 임순자1만원 강기호10만원 이주철20만원 차진석1만원 최대례사1만원 한순례1만원 김낙원10만원 김환용5만원 차상열2만원 이천원1만원 박장준5만원 유동근10만원 박경복10만원 서인순5만원 김진석3만원 김성훈30만
5. 차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박경환 ②박해정 봉헌-김나섭 부부 □ 자선헌금: 34,780원 □ 신축금 신입총액: 118,225,226원 □ 지난주봉헌금: 235,900원 □ 교무금: 218,000원

##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축! 성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오늘 계속행사)
  2. 안드레아반 영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122명: 7월3일)
  3. 모임안내: ①자모회-금주 수 11시(교육관) ②본당 울뜨레아-다음주일(7월17일) 11시미사후(야외) ③예병회-다음주 11시 미사후(교육관)
  4. 성탄반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성인반-일요일 10:30(교육관) ②성인반-목요일 오후8시(교육관) ③중고생반-일요일 오후5시(교육관)
  5. 성당참소: 급주-서완산동 2가, 다음주-삼천주공 아파트 동면
  6. 전례담당: 계시관 참조
  7. 구역임원 1일피집: 13일(수) 오전9시-오후4시까지 구역장, 반장, 총무 빠짐없이 참석바람(점심제공)
- 지난주봉헌금: 966,550원(1308명) 28명 미사헌금: 33,180(176명) 국민학생 미사헌금: 14,140(278명)  
□ 금요나눔의 미사헌금: 9,090원 □ 교무금: 581,000원